

쇼보지 절

쇼보지 절은 오히라노 신사 가까이에 있는 진언종 도지파(東寺派) 사원입니다. 쇼보지 절에는 많은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본존이기도 한 삼면관음상입니다. 또한 바위로 동물을 표현한 가레산스이 정원과 니시야마 산의 산줄기를 묘사한 병풍화로도 유명합니다.

호쇼엔과 호쇼덴

호쇼엔(寶生苑)은 가레산스이 정원과 연못이 있는 지천회유식 정원을 조합한 정원입니다. 담 너머로 뻗어 있는 교토 시가지와 히가시야마 산의 산줄기 경치를 빌려와 정원의 풍경 속에 하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다듬은 흰모래와 연못 주위에는 새와 동물 형상과 닮은 돌이 놓여 있어 ‘조수(鳥獸)의 석정(石庭)’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총 16 개의 돌은 사자, 개구리, 펭귄 등 전 세계 16 종류의 동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쇼덴(寶生殿)에 있는 평면도를 참조하면 모든 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분홍색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수양벚나무, 여름에는 푸르른 이끼와 수련, 가을에는 선명한 단풍, 그리고 겨울에는 흰 눈 등 계절별로 표정이 달라지는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색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면한 호쇼덴에는 여섯 개의 팔과 세 개의 눈을 가진, 인연 맺기와 화목한 부부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애염명왕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칠복신(七福神) 중 하나인 대흑천 상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드문 상입니다.

본당

단상에 안치되어 있는 가장 큰 불상은 본존인 삼면천수관음보살상입니다. 이 천수관음상의 세 얼굴은 과거·현재·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박을 입힌 상은 높이 1.8m의 목상으로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 초기의 것입니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수관음상 오른쪽에는 성관음(聖觀音)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관음보살상이 있습니다. 이는 쇼보지 절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진언종의 개조 구카이(774~835년)는 42세에 맞은 액년에 액막이를 위해 이 불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오른쪽에는 무로마치 시대(1336~1573년)의 대일여래상이, 천수관음상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무로마치 시대에 조각된 2구의 아미타여래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일본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불당 내에는 영어 리플렛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맹장지 그림

서원(書院)에는 오히라에서 태어난 화가 니시이 사요코 씨(1947~2000년)가 그린 맹장지 그림 「니시야마 찬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계절별 풀과 꽃, 봄의 신록으로 뒤덮인 산들을 묘사한, 고향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작품으로서 니시이 씨는 말기 질환과 싸우면서 힘겹게 17폭까지 완성했으나, 애석하게도 유작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스케치를 바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도도와 경내

2구의 인왕상이 좌우를 지키는 계단을 오르면 후도도(不動堂)가 있습니다. 가스 가부동명왕을 모시고 있으며, 안전과 번영, 병의 완치, 액막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후도도에서는 붉은색 변조탑(遍照塔, 변조는 부처의 광명이 온 세계와 사람의 마음을 두루 비춘다는 뜻)을 비롯한 주위 경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후도도 뒤편에는 장사 번성과 번영에 도움을 준다는 가스가이나리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앞에 있는 붉은 아치교를 건너면 간논노다키 폭포 앞으로 나옵니다.

나아가 산문과 본당 사이에는 가레산스이 정원이 있습니다. 또한 산문을 나와서 앞에 있는 산중턱에는 100 그루 이상의 매화나무가 심어진 매화나무 밭이 있어서 2월부터 3월에 걸쳐 아득한 저편의 히가시야마 산을 배경으로 흰색과 분홍색의 꽃이 피고 동박새 등의 새가 모여듭니다.

역사

8세기에 불교를 널리 전하기 위해 중국에서 일본에 온 승려 지위대덕(智威大德)은 754년, 오히라노에 가스가 선방(禪房)이라는 암자를 짓고 수행을 했습니다. 800년경,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초(767~822년)가 나가오카교를 수호하기 위해 이 땅에 다이젠지 절이라는 이름의 사원을 건립했을 때, 가스가 선방을 탐두(본사 경내에 있는 작은 절)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교토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오닌의 난(1467~1477년)으로 소실되었으나 1615년에 재건되어 쇼보지 절로 개명했습니다. 그 뒤 도쿠가와 막부의 제5대 쇼군 쓰나요시의 모친인 게이쇼인(1627~1705년)의 막대한 기부로 증축되었습니다.